

축사말씀



(한양대학교 총장 김 종 량)

존 경하는 대한전기학회 이동호 회장님, 한국전력공사 이종훈 사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1993년도 대한전기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에서 개최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대한전기학회는 반세기의 역사와 5,000여명의 회원을 가진 국내 굴지의 학회로서 회원들께서는 국가의 기간 산업인 에너지 산업과 그에 관련된 첨단기술을 주도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및 고도기술 사회라 일컬으며, 이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과학기술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과학기술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과학기술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형태의 문화와 방법론을 탄생시키고 있으며, 우리는 개인적인 일상생활까지도 과학기술없이는 영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이야말로 국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며, 우리나라 경제 회생의 관건이라 생각되므로, 우리 모두는 기술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양대학교는 1939년 참혹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오로지 '기술보국'의 신

념으로 설립된 '동아공과학교'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당시의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설립자의 개척자적 신념이 오늘날의 한양대학교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개척자적인 신념과 노력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미리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많은 기술 인력을 필요로 했던 60년대와 7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한양대학교가 키워낸 인재들이 산업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담당했던 몫은 실로 큰 것이었다는 자부심을 우리 한양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과학 기술자들은 새로운 시대의 미래를 요구하는 인간들의 욕구를 감지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기공학의 관련기술은 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로서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한전기학회가 '기술과 가치'가 접목된 새로운 과학 기술 시대를 열어나아가는 개척자적인 학회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대한전기학회의 정기총회및 추계학술대회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1월 26일

한양대학교 총장 김 종 량